

도서관의 정보마인드와 운영주체

최 정 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目 次

1. 도서관 정보화의 쟁점
2. 기로에 선 도서관
3. 장서로 경쟁하는 도서관
4. 운영의 주체와 '도서관의 적들'

1. 도서관 정보화의 쟁점

지금 한국의 전역에서는 '정보'라는 언어가 범람하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 '중앙정보부'가 요란할 때만해도 '정보'라고 하면 우리는 서슬퍼런 실체를 잊으려고 지성, 지력 등으로 해석하려 했었고, 부정적 시각으로 첩보 내지 비밀활동 등을 연상하기도 했다. 지금은 이 정보(information)의 의미가 도서관 분야에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전달, 기록, 출판, 보급되는 아이디어와 사실 및 상상적인 일, 작용" (도서관·정보학 용어사전) 하는데 까지 이어지고 정부안에 '정보통신부'가 설치될 정도로 모든 국민 앞에 성큼 다가와 어느덧 우리들 주위에는 정보마인드(information mind)가 깊숙히 자리를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이 '정보'라는 개념(concept)이 확실히 무엇을 뜻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도 규명되지 않은 채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언론, 학교 등 어디에서든 그곳의 활동영역과 관련시켜 군사정보, 경영정보, 언론정보, 교육정보 등으로 조어(造語)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접두어를 써서 정보관리, 정보산업 등으로 발전하여 도서관인의 큰모임에까지 '정보환경'이 밀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생각컨대, 1970년대부터 우리 도서관의 강단에서는 타분야에 앞서 '정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85년부터 대학의 학과명칭을 「도서관학과」에서 「문헌정보학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 후 사회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도서관 현

장에서도 정보화는 새로운 관심거리로 부상하였다.

이와같이 관심과 기대 속에 싹터온 도서관의 '정보화'는 '기계화' 내지 '자동화'로 구체화되면서 정보인프라의 환경 속에서 다시 '전자화'로 전이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지켜오던 전통적인 인쇄매체 중심의 도서관(paper library)이 이땅에서 제대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등의 이름으로 도서관 문화가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전자화의 팽창 규모는 확대일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브레이크 없는 벤스'처럼 줄달음질치고 있다.

정보환경의 변화는 도서관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어쩌면 도서관에서 자동화, 전자화는 필연적일 수 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그렇게 진화해 나갈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앞서 우리가 처해 있는 도서관 현장의 밑바탕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의 어느 기관보다 척박한 도서관환경과 그 문화, 지역과 주민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수, 유명무실한 학교도서관 수의 허상과 그 기능, 조악한 대학도서관 장서의 양과 질, 그리고 훈련된 전문사서의 열세 등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우리는 지금 이와같은 도서관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조금하게도 이상형의 첨단도서관을 꿈꾸고 있다. 지금 이땅의 도서관에는 전산화의 바

람이 몰아 닥치고 있다. 그 바람은 맹목적이고 가히 광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도서관의 종별과 규모의 크고 작음에 구애치 않는다. 장서 100여만권의 대학도서관이나 5천여권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전산화에 한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전산화를 기대하는 저의는 새로운 도서관이 출현되면 원시구조를 반전시키고 낙후된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 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전산화를 추구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은 정보화 사회가 되면 도서관의 업무는 자동화되고 모든 자료는 집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국가도서관과 연결하면 모두 충족되므로 단위도서관에서는 더 이상의 장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고·열람봉사 등 전통적 사서의 역할은 제한되고 컴퓨터와 정보기술자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서관은 결국 '종이 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 '책 없는 도서관(bookless library)', '벽 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the wall)'으로 변모하여 종이 및 인쇄매체를 가진 재래식 도서관을 종식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인쇄문화는 사라지고 모든 도서관이 골동품화되고 가상현실 도서관(virtual reality library)에서는 정보기술자는 종래의 사서를 몰아내게 되는 현상을 빚게된다.

우리는 이러한 섬뜩한 예언을 목전에 두고 그저 침묵으로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동조하며 그대로 따를 것인가.

도서관이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출발하려면

오직 한 방향으로만 고착하지 말고 비판적인 시각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나아가 도서관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당사자들도 그저 침묵을 지켜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처럼 중차대한 분기점에서 구성원들간에 아무런 논의나 동의도 없이 제로섬 게임으로 치루어 질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에 맞도록 의견을 조정하고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2. 기로에 선 도서관

도서관이 인류문화의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 중의 하나라는 것은 합의된 중론이다. 사실 도서관의 역사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욕망의 순간에서부터 태어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인류문명과 더불어 성장해 온 도서관은 과거의 역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료와 정보를 축적,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

이와같은 사명을 가진 전통적 도서관이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도태되고 말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 도서관인들을 엄습하고 있다.

소셜론자들은 앞으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매체의 혁신으로 도서관에는 인쇄매체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자매체가 대신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도서관이 지닌 정보의 내용은 지금까지 개체도서관이 구축해 온 재래적 매체보다 정보기술자들이 개발하는 전자 영상매체가 훨씬 크고 유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역할은 감소되고 이용자들도

직접 도서관에 가지 않고서도 요구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개체도서관보다 국가적, 범세계적 ‘정보의 바다’에서 사서의 도움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오던 도서관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결론 짓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 도서관의 기계화는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앞으로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시대가 오더라도 도서관은 그 본질적 기능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전자매체가 증가하더라도 종전의 인쇄매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며 오히려 더 많이 생산되고 활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처음 TV가 발명되었을 때 신문의 존재가 위협을 받았다. 그리고 영화가 처음 상영되었을 때 연극의 무대는 곧장 사라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사실 신문의 속보성과 현장성에서는 TV에게는 적수가 되지 못하고, 연극의 좁은 무대나 내용의 박진감은 영화의 스케일에서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신문이나 연극의 위치는 TV와 영화와 함께 공존하면서 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어떠한가. 문화유산으로서 도서관에는 지금까지 인쇄매체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도서관을 찾는다. 주된 목적은 정보의 소재확인 및 조사, 독서를 통한 교양함양, 지식의 습득, 그리고 오락 및 여가선용 이런 것이다. 이 경우 단순하고 단편적인 정보조사를 위해서는 전자매체를 통한 방법이 월등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오랜 독서습관과 깊은 사고, 지식의 열매는 주로 인쇄매체를 통해 얻어진다. 그리고 도서관의 유용성의 면에서 지속적인 독서환경과 지식의 누적, 심오한 학문을 유지하는 데는 전자매체를 통한 파편적인 정보보다 인쇄매체가 훨씬 진가를 발휘한다는 학자들의 보고에 존속론자들은 큰 힘을 얻고 있다.

책의 영원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책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카메라가 발명된 후 회화(painting)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하면서 도서관의 전자화는 전통적 도서관을 보완(reinforcement)해 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있다. 즉 전산화는 도서관 운영의 한 부분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보며 전자매체는 인쇄매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도서관학자이고 도서관행정가인 크로포드(W.Crawford)와 고먼(M.Gorman)이 최근에 저술한 『미래의 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Dream, Madness & Reality, Chicago & London: ALA, 1995)라는 책에서 ‘전자도서관’의 새로운 세계를 맹신하는 미국의 도서관학자와 현장사서에게 교훈을 주는 말을 하고 있다.

미래의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전통적인 도서관과 인쇄매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전자도서관과 전자매체만이 독점하는 것도 아니며 둘다 다같이 공존한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사서들은 도서관이 정보만을 전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심지어 정보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라. 도서관은 인류가 더욱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형태이든 기록된 지식을 보존하고 배포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정보만으로는 살 수 없으며 지식과 지혜없이 정보만을 가지는 사회는 사람들이 진지한 성찰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문화가 횡행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여 지금까지의 전자도서관 제일주의를 우려하고 전통도서관의 유용성을 옹호하고, 많은 현직 사서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이와같이 생명력과 유용성을 가진 도서관이 불행하게도 이땅의 한 구석에는 지금 또 다른 각도에서 침몰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것은 바로 일부 지역 행정직 관료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간판내리기’ 작전 때문이다. 입법사항으로 개념이 규정된 ‘도서관’의 명칭이 법률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공공도서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일부 지방자치(교육자치) 단체장들은 전문사서직을 관장으로 보임하지 않고 비전문직(행정직) 자리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간판을 내리고 ‘사회교육관’, ‘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사업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탈법적 운영을 획책하고 있다.”(《情報文化 逆行하는 公共圖書館 말살책략 즉각 중단하라》, 공공도서관 수호 비상대책 위원회, 1996. 7)라고 외치는 성명서의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기로에 선 도서관이 황당무계한 논리에 의하여 또다시 죽음에 직면하고 있음을 본다.

3. 장서로 경쟁하는 도서관

세계의 저명한 대학들은 대체로 수세기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들 대학의 도서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경쟁적으로 장서를 확보하고, 자료구입비 확충에 총력을 다한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연구도서관협의회(ARL :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가 해마다 평가하는 대학도서관 순위결정 항목에서 장서관련 통계가 매년 일순위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1995년말 기준 미국 주요대학의 장서 보유량을 보면 하버드대학 1,300만권, 예일대 960만권, 일리노이대 860만권이고, 이들 대학의 95년 한해동안의 장서증가 현황을 보면 27만권, 13만권, 20만권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미국의 상위권 대학의 평균장서수는 500만권을 넘는다.(ARL Statistics 1994~95, Washington D.C : ARL, 1996)

일본의 경우에도 東京大 680만권, 京都大 510만권 早稻田大 370만권 ('95 大學 랭킹 Japaness College and University 1993~95, 대학교육, 1996. 7·8 재인용) 등을 보유하고 있어 그들이 도서관에서 가장 치중하는 사업은 자관의 장서를 우선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맥클린(Maclean)사가 해마다 캐나다 소재 50개 대학을 평가해오고 있는데, 평가대상의 기준은 학생(21~22%), 학과(17~18%), 교수(17%), 재정(12%), 도서관(12%), 외부의 평판(20%) 등 6개 그룹으로

대학순위를 정한다. (The Maclean's Guide to Universities : Profiles of 50 Schools Plus the Annual Rankings, 1996)

그 내용을 보면 도서관의 평가치는 대학전체에서 12%가 할당되어 있으며 (참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3.2%의 가중치를 둔다) 그중에서 장서의 보유량과 자료의 최신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이들 상위대학들의 도서관 예산은 대학전체예산 중 7~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 : 한국국립대학도서관은 대학 총예산에서 평균 2%미만의 예산으로 유지된다) 도서관구입비는 도서관 전체예산에서 40~50%에 육박하며 학생 1인당 장서수에 있어서는 100권 이상에서 340권에 이르는 곳도 있다.

상기한 선진대학들은 이미 10수년 전부터 도서관 전산화가 실행되어 LAN이 설치되고 CD-ROM, internet 등의 힘으로 세계의 정보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자체 도서관의 실물장서(physical ownership collection)의 구축을 꾸준히 지속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때, 실물장서가 곧 도서관이며, 도서관이 장서로서 구성(building library collection)된 그 자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이 가능한 것은 책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열심히 책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책이 가지는 가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휴대와 사용의 편리성은 그 어떠한 전자매체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서관과 책의 공생은 영원히 지속한다는 사실을 선진대학의 도서관들은 오래전부터 경험으로 인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근 통계에 의하면 1995년 한해 동안 도서발행량은 2만 7천종(한국출판년감, 1996)으로 세계 10위권 내의 도서출판국임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한국의 대학도서관 장서수(예: 서울대 170만권, 부산대 70만권, 1995.12. 기준: 국립대학도서관보 14집, 1996)는 세계 선진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동남아 몇개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400만을 가진 부산광역시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12개인데 여기의 모든 장서는 합하면 98만권으로(김정태, 공공도서관 운영개선방안연구-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8) 부산의 모든 공공도서관의 장서수를 합한 것이 부산대학교 1개 대학의 장서수와 큰 차이가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열악한 장서현실을 외면하려 한다. 대신에 개체도서관에 없는 실물장서를 전산화의 힘으로 외부자료에 액세스(access)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 그리고 액세스만 잘 실행되면 오너쉽(ownership)은 필요없다는 생각까지 한다.

그리고 '소유'로부터 '접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도서관이 당면한 물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검색이 개방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합정보의 검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두영, "전자시대의 도서관", 제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논문대회 특별강연, 1996.8.16~17)

이러한 문제이외에도 우리가 액세스에 의해

덕을 볼 수 있는 것은 참고자료 내지 단순성일 뿐 패킷정보에 머무른다. 세계의 모든 인쇄자료를 전자화할 수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선진각국에서 일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저작권 침해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액세스 상의 갈등은 조만간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크로포드와 고먼의 충고처럼 "인류가 지닌 고도의 사고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인쇄매체보다 우수한 기록매체를 인류는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도서관은 오직 '정보'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고귀한 자료적 유산을 유지관리하며 보존한다는 사실에도 다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4. 운영의 주체와 '도서관의 적들'

가. 운영의 주체

사서(librarian)는 도서관 운영의 주체(主體)이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주인노릇을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주체의 값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서는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의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서관의 사서가 주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서구축, 자료조직, 이용자 봉사, 독서지도 등 관내의 활동의 직·간접업무는 모두 전문성이 요구된다. 봉사대상자들도 매우 다양해서 교수와 학생(이상 대학도서관)에서부터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 장애인 등(이상 공공도서관) 골고루 분포되어 있

다.

사서는 이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전문성 때문에 사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전문성이 지금 변하고 있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서는 전통적인 사서의 역할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만약 사서에게 주어진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사서가 앞장서서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서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인이 이 일을 맡게될 것임이 틀림없다.” (이두영, 앞의글) 그렇게되면 사서는 주체에서 이미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진정 이 직업에서 주인노릇을 원한다면 기술개발과 피나는 노력으로 ‘사서’의 명칭과 자존심을 포기하지 말고 내것으로 아끼며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 도서관장은 도서관운영 주체의 핵심 자리이다.

1995년 9월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교수는 『광복 50년에 대학도서관은 광복되었는가—관장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이 땅의 도서관은 해방된 조직인가, 과연 거기에는 총독이 사라지고 주인이 주체로 일어섰는가”를 물으면서 도서관장의 주체성과 전문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금까지 도서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요소인 ‘비전문직 관장’의 문제가 전면에서 나설 수 못하고 금기시 되고 있는 것은 비전문직에 의한

내정 불간섭과 편안한 분위기에 안주하려는 사서진 내지 중간관리층의 묵시적 동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관장직을 선호하는 당사자들의 경우에서도 이 직책은 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의 양보다 명예적인 보상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별로 없는 수월한 일자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도서관의 실질적 업무지도와 관리는 가만히 있어도 사서가 알아서 해주므로 인사업무 내지 예산이나 시설관리 정도만 하면 되는 한직성(閑職性)을 갖춘 경로직(敬老職)으로 인식되는 풍조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거대한 유기체로서 성장하는 도서관장의 자리는 사실 그렇게 쉽고 편안하고 한가한 자리가 결코 아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도서관을 향한 다양한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적 기록물과 정보를 수집, 조직, 관리, 보존 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업무관리를 추진하는데는 비전문직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발제자는 그 대안으로 대학도서관의 경우 “하루종일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도서관 실무에 책임지는 전문관리직형태의 관장을 채용하는 시대”를 열어가도록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장의 전문성 문제는 비단 대학도서관만이 아니라 공공도서관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야기된 ‘공공도서관의 간판내리기’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의 명칭이 유네스코(UNESCO)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수세기동안 사용되어지고, 전문인으로서의 도서관장과 사서의

지위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자격으로 향유하고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서 까지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으로 이를 마음대로 왜곡하여 '도서관의 명칭과 기능을 바꾸고', '도서관장직렬을 복수직으로' 위장하여 이 땅에서 '도서관'을 말살하고 전문직에 의한 도서관장직을 유린하려 하고 있다.

더이상의 이론이 필요없다. 1991년 3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제정한 후 李御寧 초대 문화부장관이「전국 도서관인 큰 모임, 1991.4.16」에서 격려한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면 된다. 우리는 이 말을 음미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의지를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도서관은 도서관인들의 것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권리를 새겨 놓은 그 조문입니다. 도서관장은 명예로운 사람, 또는 명예직, 이러한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서직으로서, 사서관으로서 평생을 바치려고 하는 전문인들에게 도서관의 운영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서들만이 도서관장이라는 직책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주체의 정점(頂點)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장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 가장 큰 어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단순한 하나의 도서관이 아니고 전국의 각종 각급 도서관을 지도·지원하는 우리나라 도서관체제상의 총수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관장은 국내 모든 도서관들의 업무

를 지도·지원하고 국가문헌 정보체제와 도서관협력망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국제교류의 주역이 되는 최고의 요직인 것이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5조 내지 18조 및 제41조 내지 45조).

이와같이 중요한 조직체의 수장(首長)자리가 현실적으로 너무 왜소할뿐더러 그 현실적 역할수행이 도무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인물이 못나서가 아니다. 일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도록 짜여지고 운영되는 법규와 제도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광복 50년, 국립중앙도서관 설립 반세기동안 지금까지 모두 27명의 관장이 배출되었다. 그들의 면모를 보면 거의가 행정부처의 고급관료로서 도서관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었다. 그들을 보는 우리들의 눈에는 도서관에 관한 남다른 공부도, 경륜도 없이 그렇게 왔다가 미련없이 떠나가고 또 들어오는 ‘나그네’로 비치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관장으로 재직한 27명 중 3개월 재직한 사람이 1명, 5개월 재직이 1명, 6개월 재직이 2명, 8개월 재직이 1명, 10개월 재직이 2명이고 이들을 포함한 1년 미만의 재직자가 8명이었으며 이들 27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0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한국 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 조사, 1996. 6 21)

이 기간동안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서관에 대하여 과연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고민을 했으며, 현장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의 도서관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무척 궁금하다.

한 국가의 과거를 알려면 그 나라의 박물관을

보고, 한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의 수준은 곧 그 나라의 문화수준과 미래를 예측하는 기준치가 된다.

문화인프라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1945년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해에 개관되었다. 이 기간, 50년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을 거쳐간 관장은 모두 5명이었다. 그들의 평균재직기간은 8.3년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 재임기간의 5배에 가깝다. 여기에 더욱 경이로운 것은 박물관장의 전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5명의 면모는 한국 고고학의 대가이고 한결같이 박물관계의 태두임을 알게 된다. 金載元, 金元龍, 黃壽永, 崔淳雨, 韓炳三, 鄭良謨(현재)같은 명성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위해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한국의 박물관을 위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대 국립박물관장들에 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한 인사 중에는 어찌해서 한 사람의 전문인도 없는 것인가. 그리고 같은 성격의 두 기관에서 박물관장직에는 아무나 나서지 않는데 왜 도서관장직은 전문가에게 맡겨지지 않으며 또 이러한 현실이 묵인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희망하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우선 ‘도서관’을 천직으로 아는 ‘도서관인’이어야 하고, 국가의 모든 문헌정보 업무와 모든 도서관을 영도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직책을 가지고 아무리 정보환경이 변화하더라도 ‘도서관문화’의 르네상스(Renaissance)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관장의 취임사에서 나타난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세계적 도서관을 위해 참고정보망의 추진과 인터넷 관련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는 정도의 미시적 활동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국 도서관의 발전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정립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앓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소속부서의 통합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도서관 간관’ 내리는 작대를 저지하며, 우리나라 각종 도서관들의 현안 문제까지도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도서관의 적들’

크로포드와 고먼은 도서관 안에는 도서관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들을 ‘도서관의 적들’(Enemies of the Library)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인쇄물은 부적절하여 곧 소멸될 것으로 바라는 미래 학자들, 도서관직을 평가절하시키는 도서관 내부의 사서들과 도서관 학자들, 그리고 ‘사서’를 ‘정보전문가’로 바꾸려는 사람들 ... 등이 그것이다.

나는 앞장의 논제를 포괄하여 구체적으로 첨가, 지적한다면, 도서관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도서관의 일을 잘 모르면서 아는척 하고 쉽고 편만한 일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서가 도서관의 주체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 도서관 이론서 한권도 읽지 않고 도서관장 하겠다는 사람들, 도서관장

으로서 본 업무는 접어두고 무조건 '화합하자'는 사람들, 도서관을 전자매체로 무장하고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사람들, '도서관'간판을 내리고 다른 간판을 달고자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사

람들 ... 이 모두를 '도서관의 적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적들이 사라지는 날 이 땅에는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우뚝 설 것이다.

原 稿 募 集

〈도서관문화〉誌는 1,000여 단체회원과 1,500여 개인회원의 대변지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2. 보내실곳 : ① ③ ⑦ - ⑦ ①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전화 : (02)535-4868 FAX : (02)535-5616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도서관문화”편집실 영구비치용)를 첨부 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도서관문화 편집실